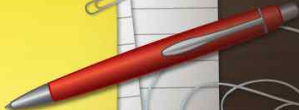


22449619 류수연

일본 스스로가 부정한 독도



주제 선정 계기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가 일본의 땅' 이라는 근거자료와 일본이 독도가 한국땅 이라 인증하는 문서들을 수업시간에 학습한 내용들을 토대로, 이들의 자료를 같이 놓고 비교하여 보고 싶어서 해당 주제를 선정 했습니다.

목차



□ 1. 독도란 어디인가? 어떠한 곳인가? 간략한 소개

□ 2. 일본이 한국땅이라 인정한 자료

- 우리나라 외교부 독도 사이트에 기재된 자료들을 활용한다.

□ 3. 일본이 일본땅이라 주장하는 자료

- 일본 다케시마 외무성에 기재된 자료들을 활용한다.

□ 4. 현재의 독도 (독도 관련된 기사를 읽고 논평하기)

□ 5. 느낀점

독도란 어디인가? 어떠한 곳인가?



- 2개의 큰 섬인 동도와 서도, 그리고 주변의 89개 부속도서로 구성되어 있는 섬이다.
- 울릉도에서 독도까지의 거리는 87.4km, 일본 오키섬에서 독도까지의 거리는 157.5km 이다.
- 독도는 역사성과 더불어 자연과학적 학술 가치가 매우 큰 섬이므로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 독도에는 다양한 생태가 살고 있는데 60여종의 식물과 130여종의 곤충, 160종의 조류와 다양한 해양생물들이 독도에 살고 있다.
- 독도는 울릉도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으며 매년 독도에 입도하는 사람은 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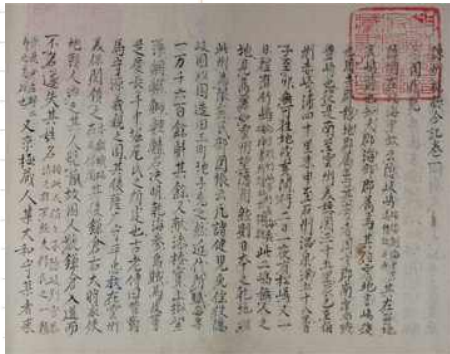
독도를 소개하는 관련 영상 시청



일본이 인정한 '한국땅 자료' 살펴보기



□ 은주시청합기



이 두 섬(울릉도, 독도)은 사람이 살지 않는 땅으로 고려를 보는 것이 운슈(雲州 - 현재 시마네현의 동부)에서 온 슈(隱州 - 오기섬)를 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일본의 서북쪽 경계는 이 주(此州 - 오기섬)를 한계로 한다.



□ 울릉도도해금지령

[illegible]

예전 마쓰나이라 신타로가 인슈(이나바)와 하쿠슈(호키)를 지배하던 시절에 품의한 하쿠슈(호키) 요나고의 조닌(町人) 무라카와 이치베 및 오야 진키치의 다케시마(울릉도) 도해는 지금까지 어렵을 하고는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다케시마(울릉도)로의 도항을 금지할 것을 명령해야 한다는 (막부/쇼군의) 지시가 나왔으니 그 뜻을 해야 할 것.



□ 오야 규에몬의 청원



울릉도 도해금지령 이후 곤궁에 빠진 돛토리번 요
나고의 오야 가문이 1740년 에도에 나가 막부의
지사부교(寺社奉行)에게 금지된 울릉도 도해 사업
을 보충하는 새로운 이권을 요청하는 내용임

□ 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



에도시대 유학자 나가쿠보 세키스이(長久保赤水)가 제작한 지도임. 이 지도에 그려진 독도와 울릉도 옆에는 『은주시청합기』에 나오는 문구가 쓰여 있어, 이 지도가 『은주시청합기』에 근거하여 “일본의 서북쪽 경계의 한계를 오키섬”으로 나타냈음을 알 수 있음.

또한 1779년 초판을 비롯한 이 지도의 정식 판본에서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 본토와 같이 채색이 되어 있지 않고 경위도선 밖에 존재하는 등 일본 영토와 다르게 취급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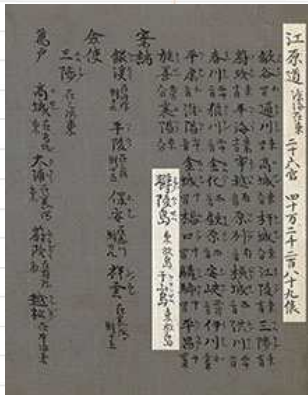


□ 쓰시마번 답신서



'하치에몬 울릉도 밀무역 사건' 이후, 1837년 일본의 에도 막부가 전국의 일본인을 대상으로 울릉도·도해를 금지하는데 결정적 영향을 미친 쓰시마번(對馬藩)의 행정문서임. 막부가 쓰시마번에게 다케시마(울릉도)의 위치·소속, 마쓰시마(독도)의 포함 여부에 대해 문의한 것에 대해 쓰시마번이 '다케시마·마쓰시마'의 두 섬은 조선의 '울릉도·우산도'라고 답변함. 막부 및 쓰시마번 모두 '다케시마·마쓰시마(울릉도·독도)'를 하나의 셋트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문서로서 일본 막부의 '다케시마(울릉도)도해금지령'(1837년)에 '마쓰시마'(독도)도 포함되었음을 알 수 있는 문서임.

□ 조선국팔계도도



이 지도에 연도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쓰시마번의 종가문서(宗家文書)를 조사하던 중 '하치에몬 울릉도 밀무역 사건' 관련 문서와 함께 발견된 자료로서, '하치에몬 울릉도 밀무역 사건' 조사 시(1836년) 에도막부가 '조선국회도(朝鮮國繪圖)' 제출을 지시함에 따라 쓰시마번(對馬藩)이 제출한 자료로 보임. 강원도 항목에 26개의 군현과 2도(島)가 기재되어 있으며 그 2도(島)가 바로 울릉도·우산도(독도)로 본문 및 지도에 표기되어 있음.

□ 다케시마제찰



'하치에몬 울릉도 밀무역 사건' 이후 에도 막부가 울릉도 방면의 이국(異國) 도해 금지를 전국에 내림에 따라 에치고(越後, 현재 니카타현)의 다카다번(高田藩)이 주민들에게 다케시마(울릉도) 도해 금지를 알리기 위해 만든 목판 풋말임. 17세기 말 안용복 사건으로 촉발된 '울릉도 쟁계'(조일 간의 외교교섭) 관련 문서(돗토리 번답변서, 1695년 12월 25일)를 보면 다케시마(울릉도)뿐 아니라 마쓰시마(독도)도 도해금지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바, 1837년 막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이를 재확인한 것은 다케시마(울릉도)뿐 아니라 마쓰시마(독도)도 도해금지 대상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관판실측일본지도



일본의 최고 지도제작자로 알려진 이노 다다타카(伊能忠敬)가 1821년 제작한 「대일본연해역지전도(大日本沿海輿地全圖)」를 토대로 1870년 메이지정부가 발행한 지도임. 이 지도는 일본 전체를 4개 부분으로 나누어 작성했는데, 현재 시마네현에 해당되는 산인(山陰)에 오키섬은 있지만 울릉도·독도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위의 사진은 4개 지도 중 「산인(山陰)·산요(山陽)·난카이(南海)·사이카이(西海)」 부분을 그린 지도임.



□ 조선국교시말내탐서



송도(독도)는 죽도(울릉도) 옆에 있는 섬이다. 송도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기록된 바가 없으나, 죽도에 관한 기록은 원록 연간(元祿年間)에 주고받은 서한에 있다. 원록 연간 이후 한동안 조선이 사람을 파견해 거류하게 했으나 이제는 이전처럼 무인도가 됐다. 대나무와 대나무보다 두꺼운 갈대가 자라고 인삼도 저절로 나며 그 외 어획도 어느 정도 된다고 들었다. 이상은 조선의 사정을 현지에서 정찰한 내용으로 그 대략적인 것은 서면에 기록한 대로다.

일단 귀국해서 사안별로 조사한 서류, 그림, 도면 등을 첨부해 보고하겠다. 이상
午(1870년) 4월 외무성 출사(外務省出仕) 사다
하쿠보, 모리야마 시게루, 사이토 사카에



□ 태정관지령, 기죽도약도



메이지 10년 3월 20일

별지로 내무성이 품의(稟議)한 동해 내 다케시마(울릉도) 와 일도(독도) 지적 편찬의 건

이는 겐로쿠 5년(1692)에 조선인이 섬(울릉도)에 들어온 이래 구 정부(에도 막부)와 조선국이 [문서를] 주고받은 결과 마침내 본방(本邦=일본)과는 관계가 없다고 들은 것을 [내무성이] 주장한 이상, [내무성의] 품의 취지를 들어 아래와 같이 지령을 내려도 되는지 품의 드립니다.

지령안(御指令按)

품의한 다케시마(울릉도) 와 일도(독도)의 건은 본방(本邦=일본)과는 관계가 없음을 명심할 것.

▣ 대일본전도



일본 메이지 시대 일본 정부의 근대적 측량 및 지도 제작기관인 일본 육군성 (육군참모본부 육지측량부)이 제작한 관찬 일본전도로, 독도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대일본국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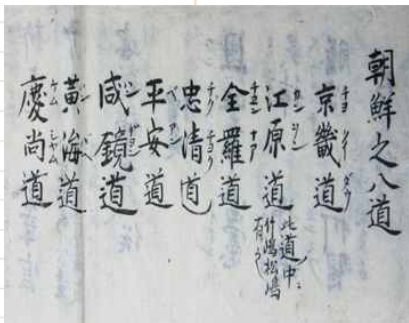
일본 내무성 지리국에서 발간한
관찬 일본전도로, 독도는 포함되
어 있지 않음.

□ 일본제국전도



일본 농상무성이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 영토와 구별해서 발행한 지도임. 이 지도에서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의 섬들과 달리 산을 나타내는 표시가 없고 색깔도 다르며, 일본 수로부 간행의 「조선동해안도(朝鮮東海岸圖)」에 근거해 울릉도는 '마쓰시마(松島)', 독도의 서도와 동도는 '오리우쓰리(オリウツ瀨)·메네라이리(メネライ瀨)'로 표기되어 있음.

□ 원록구병자년조선주착안일권지각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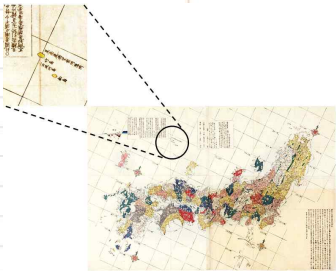


이 도(道) 내에 다케시마(울릉도),
마쓰시마(독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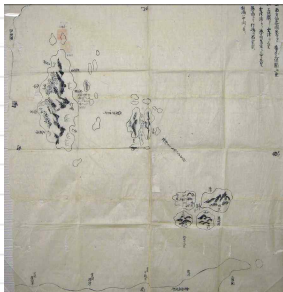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가 '일본땅' 인 이유



- 현재의 다케시마는 일본에서 일찍이 '마쓰시마(松島)'로 불렸으며, 반대로 울릉도가 '다케시마' 또는 '이소 다케시마'로 불렸습니다 (그림1). 다케시마 또는 울릉도의 명칭에 대해서는 유럽의 탐험가 등에 의한 울릉도 측위(測位)의 잘못에 따라 일시적인 혼란이 있었지만, 일본국이 '다케시마'와 '마쓰시마'의 존재를 옛날부터 인지하고 있었던 것은 각종 지도나 문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위선을 투영한 간행 일본지도로서 가장 대표적인 '나가쿠보 세키스이(長久保赤水)'의 "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改正日本輿地路程全圖)"(1779년 초판)외에도 울릉도와 다케시마를 한 반도와 오키 제도 사이에 정확하게 기재하고 있는 지도가 다수 존재합니다.



▲‘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1846년)
(사진 제공: 메이지대학 도서관 소장)



▲다케시마 지도' (1724 년 경)
(사진 제공: 돗토리현립 박물관 소장)

□ 1787년 프랑스의 항해가 라 페루즈가 울릉도에 도착하여 '다줄레 (Dagelet) 섬'으로 명명하였습니다. 그 후 1789년에는 영국의 탐험가 컬넷도 울릉도를 '발견'했으나 그는 이 섬을 '아르고노트 (Argonaut) 섬'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라 페루즈와 컬넷이 측정한 울릉도의 경도와 위도에는 차이가 있으며 그로 인해 후에 유럽에서 작성된 지도에는 울릉도가 마치 2개의 다른 섬인 것처럼 기재되게 되었습니다(그림 2).



▲[그림 1] 예로부터의 호칭



▲[그림 2] 19세기 후반의 호칭



□ 나가사키 데지마의 의사 시볼트는 유럽에서 “일본지도”(1840년)를 간행했습니다. 시볼트는 오키 섬과 한반도 사이에는 서쪽에서부터 ‘다케시마’(울릉도의 에도시대 호칭)와 ‘마쓰시마’(현재 다케시마의 에도시대 호칭)라는 2개의 섬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본의 여러 문헌이나 지도를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한편, 유럽의 지도에는 서쪽에서부터 ‘아르고노트 섬’과 ‘다줄레 섬’이라는 2개의 명칭이 함께 사용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시볼트는 자신이 작성한 지도에 ‘아르고노트 섬’을 ‘다카시마’로, ‘다줄레 섬’을 ‘마쓰시마’로 기재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당시까지 일관되게 ‘다케시마’ 또는 ‘이소 다케시마’로 불려 오던 울릉도가 ‘마쓰시마’로도 불리게 되는 혼란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 이와 같이 일본 국내에서는 예로부터 내려온 '다케시마'와 '마쓰시마'에 관한 지식과 그 후 구미에서 지어진 섬의 이름이 혼재하고 있었는데, 그러는 중에 '마쓰시마'를 멀리서 보았다는 일본인이 마쓰시마를 개척할 수 있도록 정부에 청원하였습니다. 정부는 그 섬의 명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1880(메이지13)년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청원 과정에서 '마쓰시마'라 불리던 섬이 울릉도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상의 경위를 토대로 울릉도는 '마쓰시마'로 불리게 되었으며 따라서 현재의 다케시마의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시마네현의 의견을 청취한 후, 1905(메이지38)년 그때까지의 명칭을 모두 대체하는 형태로 현재의 다케시마를 정식으로 '다케시마'라고 명명하였습니다.

다케시마의 영유



□ 1618년(주) 돗토리번(鳥取藩) 호키국(伯耆國) 요나고(米子)의 주민 오야 진키치(大谷 甚吉)와 무라카와 이치베(村川 市兵衛)는 돗토리번의 번주(藩主)를 통하여 막부로부터 울릉도(당시의 일본 명 '다케시마')에 대한 도항면허를 취득하였습니다. 그 이후 양가는 교대로 일년에 한 번 울릉도로 도항하여 전복 채취, 강치(바다 사자) 포획, 수목 벌채 등에 종사하였습니다.

□ *1625년 이라는 설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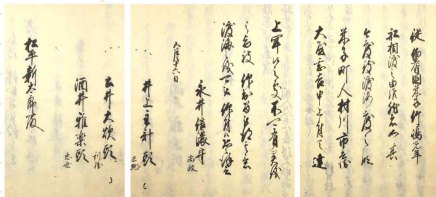
□ 양가는 쇼군 가문의 접시꽃 문양을 새긴 깃발을 달고 울릉도에서 어업에 종사하였으며, 채취한 전복을 쇼군 집안 등에 헌상하는 등 막부의 공인하에 울릉도를 독점적으로 경영하였습니다.

□ 이 기간 중에 오키에서 울릉도에 이르는 길에 위치한 다케시마는 항행의 목표지점으로서, 배의 중간 정박지로서 또한 강치나 전복 잡이의 장소로 자연스럽게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 이러하여 일본은 늦어도 에도시대 초기에 해당하는 17세기 중엽에는 다케시마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하였습니다.



- 또한 당시 막부가 울릉도나 다케시마를 외국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쇄국령을 발하여 일본인의 해외 도항을 금지한 1635년에는 이 섬들에 대한 도항 역시 금지하였을 것이지만 그러한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오야, 무라카와 가문에게의 도항면허(사진 제공: 돗토리현립 박물관 소장 '다케시마 도항유래기 발서'수록의 사본)

안용복의 진술과 그 의문점 (일본 주장)



□ 독도를 지킨 우리나라의 위인 중 한 분인 안용복 선생에 대한 일본이 제기하는 의문점들이다.

막부가 울릉도 도항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린 후 안용복은 다시 일본에 건너 왔습니다. 그 후 추방되어 조선으로 돌아간 안용복은 울릉도 도항 금지를 어긴 자로서 조선의 관리에게 문초를 받았는데, 이 때의 안용복의 진술이 현재 한국의 다케시마 영유권 주장에 대한 근거의 하나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측 문헌에 의하면 안용복은 1693년에 일본에 왔을 때 울릉도 및 다케시마를 조선령으로 한다는 취지의 문서를 에도 막부로부터 받았으나, 쓰시마 번주가 그 문서를 빼앗아갔다고 진술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용복이 1693년에 일본으로 끌려왔다가 송환된 것을 계기로 일본과 조선국 사이에서 울릉도 출어를 둘러싼 교섭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1693년의 일본 방문 시에 막부가 울릉도와 다케시마를 조선령으로 한다는 취지의 문서를 부여할리가 없으며, 실제로 그러한 사실은 없습니다.



□ 또한 한국측의 문헌에 의하면 안용복은 1696년 일본에 왔을 때 울릉도에는 다수의 일본인이 있었다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일본방문은 막부가 울릉도로의 도항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린 후의 일이며, 당시 오야와 무라카와 양가는 울릉도로 도항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 안용복에 관한 한국측 문헌의 기술은, 안용복이 1696년에 국가의 금지명령을 범하고 국외로 도항했다가, 귀국 후 조사를 받았을 때 진술한 내용에 따른 것입니다. 진술내용을 보면 상기에 언급한 내용뿐만이 아니라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점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측은 사실에 반하는 그러한 진술을 다케시마 영유권 주장의 근거의 하나로 인용해오고 있습니다.

다케시마의 시마네현 편입



- 오늘날의 다케시마에서 본격적으로 강치 포획을 하게 된 것은 1900년대 초입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얼마 후 강치 포획은 과당 경쟁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시마네현 오키 섬 주민인 나카이 요자부로(中井 養三郎)는 사업의 안정을 꾀하기 위하여 1904(메이지 37)년 9월 내무, 외무, 농상무 3대신에게 '리얀코 섬'(주)의 영토 편입 및 10년간 대여를 청원하였습니다.
- (주) '리얀코 섬'은 다케시마를 의미하는 서양식 이름 '리앙쿠르 섬'의 속칭. 당시 유럽 탐험가의 측량 오류 등에 따라 울릉도가 '마쓰시마'로 불리게 되었고, 현재의 다케시마는 '리얀코 섬'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 나카이의 청원을 받은 정부는 시마네현의 의견을 청취한 후, 다케시마를 오키 도청(島廳)의 소관으로 해도 문제없다는 것과 '다케시마'의 명칭이 적당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1905(메이지38)년 1월 각의 결정을 거쳐 다케시마를 '오키 도사(島司)의 소관'으로 결정함과 동시에 이 섬을 '다케시마'로 명명하였으며, 이러한 취지의 내용을 내무대신이 시마네현 지사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 각의 결정에 따라 일본은 다케시마의 영유에 대한 의사를 재확인하였습니다.

- 시마네현 지사는 이 각의 결정 및 내무대신의 훈령에 근거하여 1905(메이지38)년2월 다케시마가 '다케시마'로 명명되었고, 오키도사의 소관이 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고지하는 동시에, 오키도청에도 이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신문에도 이 내용이 게재되어 널리 일반인에게도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1905년 1월 28일 각의 결정(사진 제공: 국립공문서관 소장)



□ 또한 시마네현 지사는 다케시마가 '시마네현 소속 오키 도사의 소관'으로 결정됨에 따라 다케시마를 관유지대장(官有地臺帳)에 등록하는 동시에, 강치 포획을 허가제로 하였습니다. 강치 포획은 그 후 1941(쇼와16)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 한편, 한국에서는 1900년 '대한제국 칙령 41호'에 따라 울릉도를 울도(鬱島)로 개칭함과 동시에 도감(島監)을 군수(郡守)로 하였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칙령 속에서 울도군(鬱島郡)이 관할하는 지역을 '울릉 전도(全島)와 죽도(竹島), 석도(石島)'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죽도'는 울릉도 근방에 있는 '죽서(竹嶼)'라는 작은 섬이지만, '석도'는 바로 지금의 '독도(獨島)'를 가리킨다고 주장하는 연구자도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한국의 방언 중 '돌'은 '독'으로도 발음되어 이 발음하므로 한자로는 '독도'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 그러나 '석도'가 오늘날의 다케시마('독도')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칙령에는 왜 '독도'라는 명칭이 사용되지 않은 것인가, 왜 '석도'라는 섬 이름이 사용되었는가, 또 한국측이 다케시마의 옛 명칭이라고 주장하는 '우산도' 등의 명칭이 도대체 왜 사용되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 어찌되었든 설령 이 의문이 해소된다고 하더라도, 상기 칙령의 공포 전후에 한국이 다케시마를 실효적으로 지배했던 사실이 없어, 한국의 다케시마 영유권은 확립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4. 독도와 관련된 기사 읽고 논평하기



□ 이 기사는 일본인이 우리나라에 방문할 때 여권 없이 방문이 가능한 '출입국 간소화 정책'에 반대한다는 국민들의 여론을 담은 기사이다.

“일본인 여권 없이 독도 온다” 반대 국회 청원 5만명 돌파

출입국 절차 간소화 반대 국민청원 5만명 돌파
다음달 1일까지 동의 가능

일렉 : 2024-05-28 15:36

16

언제까지 일본과 악감정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일본은 한국보다 강한 나라이고



많이 발전된 나라이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나라에게 위안부 문제 사과 및 독도 관련 문제를 해결 한 후에 서로 협약을 맺고 수교하는 것이지 그게 아니라면 이런식의 수교는 좋지 못하다고 생각했다.



윤석열 정부의 모호한 독도 정책

한국 정부가 '실수'를 반복하는 사이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일본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분쟁지역화에 성공하면 다음 단계로 군사행동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김창수 (전 코리아연구원 원장) 다룬기사 보기 > | 입력 2024.05.27 06:16 871호



■ 이 기사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모호하고 친일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기사이다.

앞서 말했듯, 친일적인 수교가 마냥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행정이 독도 표기를 잘못하고, 독도를 우리 영토가 아닌 영토분쟁지 처럼 이야기 하는것은 한 나라의 국가 원수로서 매우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 번쯤은 실수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반복되면 그것은 실수가 아닌 의지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 대통령은 너무 친일적인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들어 아쉬웠다.

□ 이 기사는 경북도에서
독도지킴이 행사를 출정식을
하였다는 내용을 담은
기사이다.

2007년 부터 18회동안
독도지킴이 행사가 진행된
오래된 행사라는 것을 이번에
기사를 찾아보면서 처음
알게되었다. 나는 모르지만
꾸준히 행사를 진행하면서
알리는 노력을 했다는 것이
놀라웠다.

경북도, ‘독도지킴이’ 행사 출정식 가져

김승탁 기자

입력 2024-05-29 00:01 | 수정 2024-05-29 00:01



2007년 제1회 독도지킴단을 설립해 행사 지속 추진...올해로 18회째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전 세계에 알리고 국민에게 나라 사랑 정신 함양



▲ 경북도청 전경.©경북도

□ 이 기사는 배우 홍경인이
독도 홍보대사가 위촉되었
다는 내용을 담은 기사이다.

이 기사에서는 배우 홍경인에
대한 소개와 '러브독도 페
스티벌'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있다. 배우 홍경인이라는
분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다.

독도사랑운동본부가 유명인을 위촉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는 점을
알겠으나, '홍보'에 초점을 두려면 우리나라가 k-pop, k-드라마, 브랜
드 앰버서더 같은 분들을 해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아쉬
웠다.

배우 홍경인, 대한민국 영토 독도서 독도 홍보대사 위촉

입력 : 2024-05-29 09:58:11 | 수정 : 2024-05-29 09:58:10

(사)독도사랑운동본부, 울릉도·독도 연예인 홍보단으로 독도 홍보 활동
6월19일 오후 4시, '제2회 러브독도 페스티벌' 개최

(사)독도사랑운동본부는 배우 홍경인을 울릉도·독도 연예인 홍보대사로 대한민국 영토 독도에서
위촉했다고 29일 밝혔다.

배우 홍경인은 1988년 MBC 베스트셀러극장 '강'으로 데뷔한 뒤 1922년 영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KBS 드라마 '젊은이의 양자'에서 뛰어난 연기력으로 호평을 받았다.



□ 이 기사는 2010년부터 발견된 생태계 교란종 '잡쥐'가 독도에 개체 수가 증가하여 문제라는 내용을 담은 기사이다.

□ 최초 발견인 2010은 벌써 14년 전이다.. 만약 처음 발견 했을 때 제대로 된 관리와 지원에 들어갔다면 시간과 비용, 환경 모두 이득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었다.

어디서 왔나... 1년에 새끼 460마리 낳는 '독도 불청객'

최은서 기자 [구독 +](#) [입력 2024.05.20 11:20](#)

잡쥐, 2010년 이후 포착 빈도 늘어
섬으로 접근한 선박 통해 유입 추정
번식력 강해 박멸 시도했다 부작용
당국 "장기간 방제... 멈춰서도 안돼"

많이 본 뉴스

- 1 김호중, 공연 강행
나...미리 받은 돈만
- 2 합참 "北 대남전단

이 기사는 대구지방환경청과 경북경찰청과 함께 업무협약을 올릉군 독도 자연 생태계 보호 적극 나선다 하여 독도의 생태계 환경보존고 안전환경을 보호한다는내용을 담은 기사이다.

대구경북

2024.05.27 17:17

울릉군·대구지방환경청·경북경찰청 독도 안전 환경 조성 업무협약 체결

이 기사를 읽고 전에 독도경비와 독도에 사는 주민의 영상을 본 기억이 났다. 당시 굉장히 환경이 좋지 않았는데 이런식의 협약을 통해서 지원이 된다면 정말 좋을 것 이라 생각한다.



이 기사는 서울의 어느
초등학교에 독도교육을 3차
에 걸쳐 진행하였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기사이다.

이 기사를 읽고 일본과 우리
나라의 독도교육의 차이에
대해서 격차를 느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독도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독도에 대해 미래의 새싹인 청소년과 학생들에
게 잘 교육 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독도협회, 청소년에 독도교육 3차에 걸쳐 실시
韓, 독도교육 연간 1시간 권장..日-초,중,고 국정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땅 거짓 교육

소중한 기사 | 기사입력 2024/05/30 [10:56] | [본문 보기](#)

해양수산부 인가 사단법인 대한민국독도협회는 지난 24일 서울 봉영여자중학교를 시작으로 27일 대구와
홍초등학교, 29일 인천 남동중학교에서 청소년 독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Commons
Newsroom

AI M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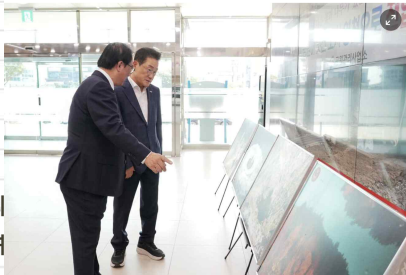
추천 콘텐츠



특수임무유공자회 영천시지회, 독도사진전시회 개최

■ 이 기사는 특수임무유공자회 영천시지회에서 독도사진전시회가 개최되었다는 내용을 담은 기사이다.

남성호 기자
발행 2024.05.23 15:13



이 기사를 읽고 독도에 대해서 홍보하려면 독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여주며 영상을 보여주면 홍보 효과가 좋을 것 이라고 생각했다. 독도에는 많은 동,식물들이 사는 곳 인 만큼,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알아주었으면 한다.



무거
명품



열기
속보 타임러

이 기사는 독도교육청이 사이버독도 메타버스를 구축하여 국민들 뿐만 아닌 전세계인에게 독도에 대한 지리적, 역사적 중요성을 현실감 있게 재연했다는 내용이다.

메타버스의 장점을 독도 교육에 힘썼다는 것이 놀라웠다. 이런식의 디지털 발전이 많이 생겨나는 추세라 반갑다.

독도교육청, 사이버독도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시연회

김우섭기자 | 승인 2024.05.23 | 댓글 0

| 쌍방향 독도 교육 모델 제공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경북도민일보
HIDomin.com

이 기사는 한국대사관이
미주 지리역사연구소에
대한민국 국가지도집
스페인어판을 전달했다는
내용을 담은 기사이다.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영토, 역사, 인문환경,
자연환경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기록한 국가 공식
기록물이라는 것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나는 이렇게 공식기록물을 남기는 것이 독
도에 대해 우리나라의 것이라 주장하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케시마가 아니라 독도"...미주 지리역사硏에 국가지도집 전달

송고시간 | 2024-05-18 00:07



이재협 기자

| 주멕시코대사관 "한국의 지리·문화적 특성 이해 높일 것 기대"



1121회
주요인물



언제나 Terra
Temu

핫뉴스+

강형욱 반려견 레오 '수의사 고발당해'

용눈이오름 화장실 2
아..."남고 습기 차 별

그 무 스텝 비리 보



□ 이 기사는 울릉도에서

독도 지키기 전국마라톤대회기독도지키기 울릉도 전국마라톤대회 열린다

개최한다는 내용을 담은 기사

허영국기자 | 승인 2024.05.27 | 댓글 0

이다. 여러 방송사와 대한체육

협회의 협찬이 있고 특산물을

기념으로 증정한다.

내달 9일 울릉 해안 일주도로
달리며 독도 수호 의지 다져

독도가 아니더라도 인근의

섬인 울릉도에서 하는 행사라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울릉도

섬 전체를 달리고, 울릉도의

특산물을 먹는 듯 유의미하다

고 생각이 들었다.





■ 이 기사는 현재 이슈중인 '라인의 경영권'문제를 중점으로, 이 사태에 대한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며 독도 또한 그렇게 둘 것이냐.며 독도에 가서 성명서를 작성하였다는 내용을 담은 기사이다.

처음에 라인의 경영권 문제에 대해서 큰 문제가 아니라 생각하였으나 점점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심각한 문제라고 의식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기업이 일본에게 간다는 것을 시발점으로 독도와 그외 다른 우리나라 기업또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연일 反日몰이 나선 야권... 죽창가 불렀던 조국, 독도서 성명서

日 "극히 유감... 엄백한 日 고유 영토"
박찬대 "해국정부-정당 비판 받을 것"
정부 대일외교 향해 압박 수위 강화

입력 : 2024-05-14 00:20

좋아요 0



조국
데
컬
국





□ 이번 PPT를 제작하면서 이전에 배웠던 자료들을 다시 한 번 더 복습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 수업을 들으면서 우리나라가 독도가 우리땅이라는 광고나 홍보등의 노력을 하는 것은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자료조사를 하고 PPT를 제작하여 봄으로써 우리나라도 독도가 일본의 땅이 아닌 우리나라의 것 이라고 알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독도는 앞으로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일본이 독도가 일본땅이 아닌 대한민국의 땅이다. 라는 말을 들을 때 까지 귀를 기울이며 이 문제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해야 한다. 앞으로 '영토와 영유권분쟁 그리고 독도' 수업을 들은 학생으로서, 관련기사를 꾸준히 읽어야 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감사합니다